

가전의 진화 어디까지 필스너·에일 등 수제맥주도 집에서

LG전자 '홈브루' 출시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캡슐·물만 넣으면 간단하게 제조 발효부터 숙성·보관까지 자동진행 인버터 컴프레서로 전기료 부담 ↓

LG전자가 의류관리기, 건조기, 피부관리기 등 신가전을 넘어 수제 맥주 제조기를 통해 퍼플오션 가전 시대를 연다. 퍼플오션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만드는 경영전략이다.

LG전자는 16일 세계 최초 캡슐형 수제맥주제조기 'LG 홈브루'를 출시했다. LG 홈브루는 캡슐과 물을 넣으면 발효부터 숙성, 보관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맥주 제조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한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송대현 사장은 "독일속담에 '가장 맛있는 맥주는 양조장 굴뚝 밑에서 갓 나온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LG 홈브루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맥주를 원하는 로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삶의 재미를 더해주는 제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모델이 'LG 홈브루'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LG 홈브루의 주요 타깃층은 맥주 마니아다. 가격이 399만원으로 고가인 만큼 맥주를 진정으로 애정하는 소비자만이 LG 홈브루를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이다.

송 사장은 "홈브루는 많이 판매해서 이윤을 낸다는 목적보다는 5년, 10년 후 변할 미래를 대비해 오래전부터 고민하다가 출시한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LG 홈브루는 전 세계의 맥주 맛을 찾기 위해 2000번의 실패를 거듭했고, 30톤 이상의 맥주를 버리는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LG 홈브루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인디아 페일 에일, 페일 에일, 스타우트, 위트, 필스너 등 인기 맥주 5종을 제조한다. 맥주 캡슐 가격은 3만 9900원이다. 캡슐은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이며, 소비자 취향에 맞춰 조합하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캡슐도 검토 중이다.

사용자는 종류에 따라 2~3주 후 약 5리터의 맥주를 맛볼 수 있다. 밀맥주인 위트를 만드는 데 약 9일이 소요되며, 발효가 가장 오래 걸리는 라거맥주인 필스너는 약 21일 걸린다. IPA, 페일에



LG 홈브루로 제조한 스타우트. /구서윤 기자

일, 스타우트 등은 2주 안팎이다.

홈브루의 제조 노하우는 ▲마이크로 브루잉 공법 적용 ▲전통 있는 영국 제조사와 협업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요약된다. LG전자는 홈브루에 최적의 온도, 압력, 시간을 제어하는 마이크로 브루잉 공법을 적용했다. 사용자는 제품 전면 디스플레이와 스마트 폰 전용 앱을 통해 실시간 제조과정을 볼 수 있다. 완성된 맥주는 최적의 보관 온도인 6도(°C)와 차가운 맥주를 위한 4도 중 선택해 보관 가능하다.

LG전자는 98년 전통의 세계적 몰트(싹이 트 보리나 밀로 만든 맥즙) 제조사인 영국 문톤스와 함께 프리미엄 원료를 담은 캡슐형 맥주원료 패키지를

공동개발했다. 캡슐 패키지는 맥주의 주원료인 맥즙팩과 함께 발효를 돕는 효모, 맥주에 풍미를 더하는 홉오일, 플레이버(맥주향) 등 3개의 캡슐이 한 세트 구성돼 맥주의 맛과 향을 그대로 보존한다.

신선한 맥주를 위해 철저한 위생관리 시스템도 갖췄다. 온수살균시스템을 적용해 맥주를 만들기 전, 만드는 도중, 완성한 후에 내부 유로를 살균한다. 또한 6개월마다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방문해 내부 살균, 외부 세척, 필터 교체 등 제품을 관리한다.

맥주 5리터를 만드는 데 드는 전기료는 약 1374원이다. LG전자는 인버터 컴프레서를 적용해 전기료 부담을 낮췄다.

LG 홈브루는 일시불 구입과 케어솔루션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3년간의 관리 서비스를 포함한 일시불 가격은 399만 원이다.

LG전자는 홈브루를 국내에서 먼저 출시한 후 소비자 반응을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해외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미국 시장에서 먼저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구서윤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친환경·안전 다 잡은 그린케이블 잇따라 선보

Advertorial Corner

LS전선, 매연발생 원천 차단 불에 강한 내연·내화 제품도

LS전선이 최근 '그린 케이블'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줄여 친환경적이면서도 불에 잘 타지 않아 안전도 지켜낸 제품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전력·통신 케이블은 화재 뇌관 역할을 하거나 대형 인명 피해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기술적 한계와 법령 미비 때문이다.

LS전선은 최근 매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선박용 육상전원공급 케이블을 출시했다. 선박이 항구에서 자체 엔진 대신 육상 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컨테이너선 1척이 정박중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디젤 승용차



LS전선이 친환경적이고 화재 위험도 최소화한 '그린 케이블'을 잇따라 출시 중이다. 사진은 LS전선이 개발한 친환경 육내용 케이블 'H FIX+'.

/LS전선

5000만대, 초미세먼지가 트럭 50만대 분량에 이른다는 점에 착안했다.

불에 잘 안타는 내연제품과 고온에서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내화 제품, 화재에 강해 유독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케이블도 속속 선보였다. 유독가스가 화재시 인명사고 주 원인임을 고려할 때 골든타임을 늘릴 수 있는 셈이다.

친환경 육내용 케이블 'H FIX+(플러스)'는 기존에 자주 쓰이던 폴리염화비닐(PVC) 케이블보다 유독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연기 공기 투과도도 높여 시야 확보도 용이하게 했다.

민간 건설사는 친환경 케이블 사용이 보편화됐지만, 일부 공공 건설사는 여전히 PVC 케이블을 사용하고 있어 화재 시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는 전언이다.

LS전선은 내화 특성을 높인 케이블도 개발해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1050°C에서 120분을 견딜 수 있는 제품으로, 최근 발생했던 것처럼 통신사에 화재가 일어나도 통신과 신호 전송 등 기능을 수시간 이어갈 수 있다.

한편, 국내법상으로 케이블 내화 기준은 750°C, 90분에 불과하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950~1050°C, 120~180분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용기자 juk@

신형 파나메라 GTS, 국내 시장 '첫발'

포르쉐코리아, 스포츠카 공식 출시

포르쉐코리아는 신형 파나메라 GTS를 16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

포르쉐코리아에 따르면 신형 파나메라 GTS는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하는 포르쉐 스포츠카 고유의 강력한 성능과 정통성을 계승했다. 3 챔버 에어 서스펜션과 다이내믹 새시 시스템이 적용됐으며 4리터 8기통 엔진이 탑재돼 최고 출력 460마력, 최대 토크 63.3kg·m의 힘을 낸다.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기본 장착된 모델로 제로백 시간은 4.1초에 불과하다. 최고 속도는 시속 292km다. 동력은 8단 PDK 듀얼 클러치 변속기를 통해 포르쉐 트랙션 매니지먼트(PTM) 4륜 시스템에 전달되는 구조여서 구동력 손실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PASM)는 더 스포티하게 조정됐고 10mm 낮아진 스포츠 새시로 다이내믹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더 커진 브레이크는 전·후륜 직경이 각각 390mm, 365mm에



신형 파나메라 GTS /포르쉐코리아

달해 뛰어난 제동 성능을 발휘한다.

블랙 컬러로 도장된 새틴 마감의 20인치 파나메라 디자인 휠이 기본으로 장착된다.

신형 파나메라 GTS는 4인승과 5인승 2가지로 출시되며 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해 2억 480만원이다. 개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한 가격은 2억 150만원이다.

/정연우기자 ywj964@

위니아담채·위니아대우 '창립 20주년' 이벤트 "7월 구매 고객님 경품 받아주세요"

퀴즈 참여고객 대상 한달간 진행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가 구매 고객에 푸짐한 경품을 증정한다.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가 사명을 변경하면서 고객에 감사를 전한다는 의미로 기획됐다.

경품은 7월 한달간 위니아담채와 위니아대우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구

매한 후 8월 15일까지 홈페이지나 위니아샵 이벤트 팝업창으로 구매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추가 추첨도 있다. 8월 26일 홈페이지에 당첨자를 발표하고 에어컨과 TV 등을 선물할 계획이다.

SNS에서는 사명변경 이벤트로 매일 20명에 커피 기프티콘을 뿌린다. 위니아공식 블로그에서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퀴즈 행사에 참여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김재용기자

KT, 영농+태양광 융복합 사업 본격화

연중 최고 품질 농산물 생산 가능 태양광 발전으로 안정적 수익까지

KT는 태양광 일체형 버섯 재배 실증을 마치고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결합한 영농태양광 융복합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KT는 지난해 9월 청운표고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청운농장에 지붕 태양광 일체형 재배사를 구축해 버섯재배 및 각종 인허가 실증을 진행했다.

이번 실증으로 표고 생산에 최적화된 표준 설계를 확보했고, KT기가스마트 팜 환경제어를 통해 예측했던 생산성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또 재배사 건축부터 태양광 발전 인허가·준공까지 전체 업무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구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KT가 자체 개발한 영농태양광 사업

은 지붕 태양광 일체형 식물재배시설이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화된 단열성능 및 공조 설비가 탑재돼 있다. 이 때문에 연중 최고 품질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으며 지붕 태양광 발전으로 안정적인 수익도 올릴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또 KT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운영 솔루션을 통해 재배사 내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CO₂) 등 식물 재배환경을 제어하고 태양광 발전현황을 24시간 원격관제, 지능형 CCTV를 통해 재배사 안팎의 보안 관리까지 지원한다.

KT는 실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초보 농민이 겪는 어려움과 투자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건에 맞는 부지의 선정, 수익성 분석, 표준설계 제공 등 종합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